호기롭게 올 한 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리방법 또는 관리체계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 보고자

예전의 한국적 민주주의 라는 주창과 같이 일방적으로 외국 선진기업에서 추구한다는 구라를 가지고 외국의 구라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줍잖은 이론을 들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치려고 전산 Package System까지 만들어서

사기의 일등 공신이 컨설팅 또는 로펌, 회계법인 들의 그렇듯한 구라 뻥을 앞세워서 돈 긁어가는 산업에 새로운 나름 진실구라를 펼쳐보고자 첫발있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전산으로 밥먹고 사는 시키들은 즈그들 면피에 급급해서 권위있다고 야부리까는 컨설팅, 로펌, 회계법인들과 협잡해서 회사의 돈을 즈그들은 책임않지고 지돈 아니라고 막쓰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첫발로서

교육산업이 어린학생들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애들 잡든 말든 관심없이 교육산업을 통해서 일확천금 벌어 볼려고, 강남 1타 강사 … 아이고 씨불놈들 !!! 아주 지랄들을 해요 ~~~

결국 즈그들 밥그릇 싸움에 애들은 피멍이들고 , 행복이 무었인지도 모르고, 의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무었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회에 배출되어

결국 수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돈이 우선되고, 지들 목적을 위해서 기득권 지키겠다고 지랄들 하면서 즈그들이 얼매나 불행한지도 모른체 집단적으로 질랄들 하는 세상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는 첫발을

호기롭게 기술경영실장 교류회를 통해서 이룩해 보고자 했는데..

1,2회 거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 못시킨점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모임에 참석한 목적이 쉬로 온 건데, 내가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재미도 없게 풀어가다 보니 많은 반성 했음.

이번 부터는 재미있고, 약간의 얻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보고자 함.

조금 뜬금없는 내용으로 접근해볼까 합니다. 그냥 재미로

철학자 니체가 사람 유형의 낙타, 사자, 어린아이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구라쳐도 되는지 알아보게…

또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내 친구 탈레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블랙스완 말고도 몇 개 쓴 책이 있는데 혹 읽어보신분

이거도 내가 구라쳐도 되는지 알아 볼라고 함

근데, 내 친구 탈레브는 나는 친구로 생각하는데, 갸는 나를 잘 모를 꺼여요..

탈레브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제가 모태신앙이 제 집사람 놀릴 때 써먹는 이야기 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100명이 물에 빠졌요, 기독교 신도이신 분은 이슬람교도 100명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시고요, 혹

신앙간증 했어요, 기도해서 살았다고…

저가 올 상반기에 차세대 CTO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주관자 엘지화학에서 베터리 만드는 동안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Cto까지 하신 유진영 사장이 만들었는데

과정 중에 하루는 현대 자동차에서 알파엔진 개발한 이현순 부회장까지 한 사람과 독서모임 만들고 교보문고 책 추천하는 활동하는 분 한근태 씨가 강의하는 날 있었는데

주관자 유진영 사장과 두사람 모두 이